

기초부터 배우는 성경 공부

제19과 교회

[딤후3:15]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교회라고 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편의상 부르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뜻은 아니다. 여기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가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이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 교회란 무엇인가?

[딤후3:15]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를 번역한 말이다. 이 말은 “...으로부터 불러냈었다”는 뜻이다.

[마2:15]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 “애굽에서”라는 말이 “엑스 아이굽투(Ἐξ Αἰγύπτου)”이다. 그리고 “불렀다”라는 말이 “칼레오(καλέω)”의 과거형인 “에칼레사(ἐκάλεσα)”이다. 이것은 “...으로부터 불렀다”는 형식이다.

교회는 애굽으로 표상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말이다.

계시록에 의하면 애굽은 이 죄의 세상을 표상하고 있다.

[계11:8]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좁게 말하면 유대 땅 골고다이지만, 넓게 말하면 죄의 세상이다. 예수께서 죄의 세상에 죄를 멸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이 세상을 영적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다.

영어의 “Church”라는 말은 헬라어 “쿠리아콘(κυριακόν)”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 말은 “주님의 것”이라는 뜻이다.

이상의 두 단어를 종합하여 생각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사람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것으로 삼은 것”이라는 뜻이 된다.

신약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곳이 마태복음 16:18이다.

2. 교회의 기초는 무엇인가?

[마16: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기초는 반석이다.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하기를 예수님을 “산 돌”이라고 하였다. 또 성경 다른 곳에서도 반석은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계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이다.

[벧전2:4,5]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5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고전10:4]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전3:11]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마7: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상의 말씀들은 예수님과 그의 말씀이 반석인 것을 분명히 가르친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과 그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다. 이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바르고 확실한 말씀 위에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창수가 나고 바람이 칠 때 무너질 것이다.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심판 때에 주님 앞에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조직이 아무리 거창하여도 그것은 가짜 교회이며, 예수 이름을 팔아서 세상에서 이익과 찬사를 받았을 뿐이다. 이런 사실을 지적하신 것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의 사람들이다.

[마7:21-23]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께서 마16:18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를 믿는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이 말씀하신 바로 다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사실에서(마16:21) 이런 의도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

3. 교회는 무엇을 하는가?

[딤후3:15]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행11:25,26]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엡3:8-11]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취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0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11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교회는 온 우주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세우신 기관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의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교회를 통하여 온 우주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깨닫게 될 것이다.

[골1:19,20]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 하심이라.

예수의 십자가는 온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온 우주로 예수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능력이다. 이것이 교회를 통하여 온 우주에 증거된다. 교회의 역할이 이 세상에만 국한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책임을 통감하고 살아야 한다.

4. 교회는 조직이 필요한가?

[엡1:22,23]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23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엡4:15,16]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롬12:4,5]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의 몸 조직으로 비유하였다. 머리를 중심으로 몸의 모든 지체들은 신경으로 연결되어 일사분란하게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움직인다. 몸의 각 부분에는 실제로 귀천이 없다. 다른 것이 다른 지체의 일을 대신할 수 없다. 각 지체는 각각 건강하게 그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면 몸 전체가 건강하고 제 기능을 다 하게 되는 것이다.

지체가 몸에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나가면 몸은 불구가 되고 떨어져나간 지체는 수명을 다하게 된다. 교회는 바로 인간의 몸의 구조와 조직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모든 신자는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조직이 없을 수 없다. 교회는 생리적으로 조직을 필요로 한다. 그 조직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교회는 몸이요 모든 신자들은 그 몸의 지체이다.

세상에 있는 조직 중에 생물의 신체조직보다 더 정교하고 효율적인 것은 없다. 이런 것을 유기체라고 한다. 교회는 유기체이다. 살아서 삶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유기체이다.

[고전12:28]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다.

[엡4:11,12]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12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의 직분들은 계급이 아니다. 그것은 한 지체로서 지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어떤 지체는 덜 귀중하고 어떤 지체는 더 귀중한 것은 아니다. 물론 지체 중에 없으면 목숨을 잃는 지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체도 있다. 그러나 몸을 건강하게 지탱하며 몸의 기능을 완전하게 하는데 한 지체라도 없으면 안 된다. 몸을 세우는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행14:23]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딤후1:5]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딤후3:1-13]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2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3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4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5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6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7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울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8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9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10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11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12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13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체인 교회는 교회의 심장이며 생명인 성령께서 주관하신다. 성령은 교회를 가장 건강하게 활동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에 은사를 주신다. 그리고 그 은사를 따라 주어진 직분이 있다.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충성하여 교회를 섬기고 세워야 한다. 그들이 직분을 건강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병들게 하는 지체가 된다. 충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

이절 직분들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2장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교회는 몸의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교인들이 그 지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직분을 받은 사람은 그 직분을 효과적이고 능력 있게 발휘해야 하며 직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교인들로서 제몫을 건강하게 담당해야 한다.

5. 교회의 사업은 무엇인가?

[마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행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교회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일을 해야 한다.

[엡4:13-15]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1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해야 한다. 신자들이 교회당에 출석하여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야 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해야 하고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한다.

[엡1:12]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